

6·4 지방선거 지역감정... 흑색선전... 금권 난무

“진흙속에서 연꽃 피우자”

유권자·시민단체 ‘선거감시’ 활동 나서

깨끗한 선거는 불국토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19일부터 후보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6·4지방선거 전이 예년과 다른 것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선거법을 개정, ‘돈 안드는 선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정당이 향후 정계개편을 궁극적 목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 중앙당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판나라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정치 ‘국민회의’가 있습니다” 등 말장난 정치 광고가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있다. 초반부터 정책대결은 없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지역감정 조장 및 상호 비방과 폭로·탈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다수 유권자들은 “이같은 혼탁·과열선거 풍토에서 밝힌 단체장들이 과연 경제난국을 잘 수습할 지 의문”이라며 “내고장의 발전과 주민

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안·포부를 제시하고 승패를 가르는 정책경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불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 공동대표 손봉호)는 18일 ‘공선협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19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후보자 1인에 대한 감시단원을 편성, 탈법·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게 된다. 감시단은 특히 △식권이나 각종 금품 제공 △상대당 및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불법적인 청중동원 △선선공약 남발·지역감정 조장 등 부 등에 대해 ‘1일 보고서’를 만들어 공선협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한다.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은 19일 지방자치시대에 친환경적인 인사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경후보’ 89명의 명단을 확

정해 발표했다. 이와함께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줄 (정책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시청을 개혁하기 위한 50대 과제를 발표하는 동시에 공명선거 감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친환경적인 자치단체장의 10대 조건”을 발표하는 한편,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친환경적인 이력도 조사·공표할 계획이다.

‘공택시 공선협’ 공동의장인 정경스님(삼복사 주지)은 “정부 여당이 앞장서 관련·공권선거를 막고 선거를 통해 IMF구복을 위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은 먼 미래를 내다 보며 진흙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자세로 개발에 밀려 소홀이 다뤄진 복지·환경·문화행정에 관심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후보자 1대1 감시” ◇공명선거실천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6·4 지방선거 후보자 모니터 자원봉사대원 발대식을 열었다. 자원봉사대원들이 지급받은 감시용 카메라를 조목해 보고 있다. <한겨레신문 제공>

“바른생각 실천하는 자 뽑자”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우선 자신을 잘 다스린 후, 자비심으로 백성을 가르쳐 불순한 마음을 없애 주어야 한다...가난한 백성이 밀려오면 창고를 열어 원하는 것을 내주고, 그 기회에 사악한 마음과 탐욕을 떨쳐 버리는 지혜를 가르친다”(화엄경) ‘가야골포장 해인총림 대책위원회’ 법찬스님은 “각 지방마다 유서깊은 전통사찰과 아름다운

정리해고제를 앞세운 기업의 무단해고와 정부의 임시방편적 실업대책은 노동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급기야 지난 1일에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 사태까지 불렀다. 그러나 시위는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악재로 작용하는 등 비난을 받았다. 지금은 정치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만 하는 때이다. 특히 노사간의 상호이해에 따른 인내와 협력에 국운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들어 양측이 대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노사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는지와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경청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듯 다섯 가지 일에 힘써 존경해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힘에 알맞게 부리며,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때때로 휴가를 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 주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마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하여 다섯 가지에 힘써야 하느니라.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 기를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라. 주인을 물건을 아끼고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하고, 주인이 출입할 때 항상 예절로서 대하며, 주인이 착한 점을 말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할지 않도록 하라.

“분쟁 일으키면 고되 맛보네”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때도 같이 싸우지 마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화를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운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석장인연경>

모든 중생을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따르니,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나 사업을 이룩하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업자아람경>



◇美 LPGA 챔피언십골프대회 우승컵을 안은 박세리.

박세리의 무심타법 ‘세계 평정’

시합전후 “관세음보살”...모정불심도 큰 힘

“훌륭한 골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18일 미 LPGA 챔피언십골프대회에서 우승, 일약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발돋움한 박세리(21). 그녀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승자답지 않게 앞으로의 포부를 겸손하게 밝혔다.

국력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 잠고 있는 우리의 도전정신을 일깨운 그녀의 쾌거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후원자들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날마다 밤 10시까지 계속되는 지옥훈련 등 엄격한 자기통제와 끊임없는 체력질은 혼자만의 고행의 길에서 한결기 깨달음의 광명을 맞은 것과 같은 감동적인 일이었다. ‘골프는 가슴으로 치라’는 아버지 박준철(48)의 엄격한 지도,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 등도

빠뜨릴 수 없는 성공 요인이었다.

하지만 박세리가 ‘무심 타법(無心 打法)’으로 세계를 평정한 뒤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가피가 있었다. 어머니 김정수씨(45)는 시합기간 내내 계곡산을 찾아 불공을 드렸다. 김씨는 동화사 미타암을 자주 찾아가 기도를 올리지만, 인연 닿는 절은 어디나 찾아가 딸의 성공을 기원했다.

박세리 역시 한국에 있을 때는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산사에서 기도를 올렸다. 훈련 중 힘이 들 때면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시합 전이나 후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 왔다.

“불완전한 통치는 추락한다”

인도네시아 32년 철권 수하르토 퇴진

“통치자는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이 태평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 통치는 불완전한 것이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불완전한 통치는 언젠가 추락할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금 현실에서 입증됐다.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1일 철권 32년의 막을 내렸다. 이란의 샤 팔레비, 마르코스 필리핀 전대통령 등 장기독재자들이 ‘피플즈 파워’에 의해 물러났듯이 개인의 권력욕을 끝없이 추구한 말로는 하나같이 비슷했다.

“지자체 환경보다 개발우선”

녹색연합 환경공무원 설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지역 개발문제와 연관되면 환경보다는 개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지난 4월 한달동안 PC통신을 이용, 전국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장관 환경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인 1백1명의 환경공무원들 중 95%가 단체장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나,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 상충되면 ‘지역개발에 더 적극적이다’는 답변이 53.5%에 달했다. 반면 환경보존이 우선한다는 답변은 1%에 불과했다.

“밥 굶는 제자를 돕자”

한국교총 모금, 교사 1만명 동참

점심을 굶는 중·고생이 전국적으로 1만7천 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교총은 이달안으로 교직원 1인당 1000원을 모금하여 ‘한명의 교사가 한명의 굶는 제자 돕기’ ‘인상면 2만원 모으기’ 등 행사를 통해 총 30억원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성금 기탁 희망자는 국민은행(760-25-0007-680)의 한국교총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한편 성남교육청도 결식아동들을 위해 한우 등을 팔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랑의 한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0342)706-0167

세상품 “에어콘형 선풍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에어콘형 선풍기’

이 제품은 기존의 날개 방식에서 탈피 원통형 팬을 장치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강력한 터보팬을 채용해 보다 세고 시원한 바람을 공급해 준다.

차세대 감각에 맞는 미려한 디자인으로 공부방, 거실 등 어느 곳이나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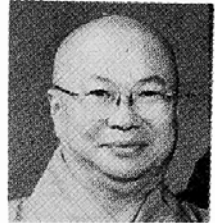
(주)금강전자, 5만8천원. (02)992-5431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텝



시연스텝(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텝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텝의 은사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법보신문 제 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참가서 노화억제 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